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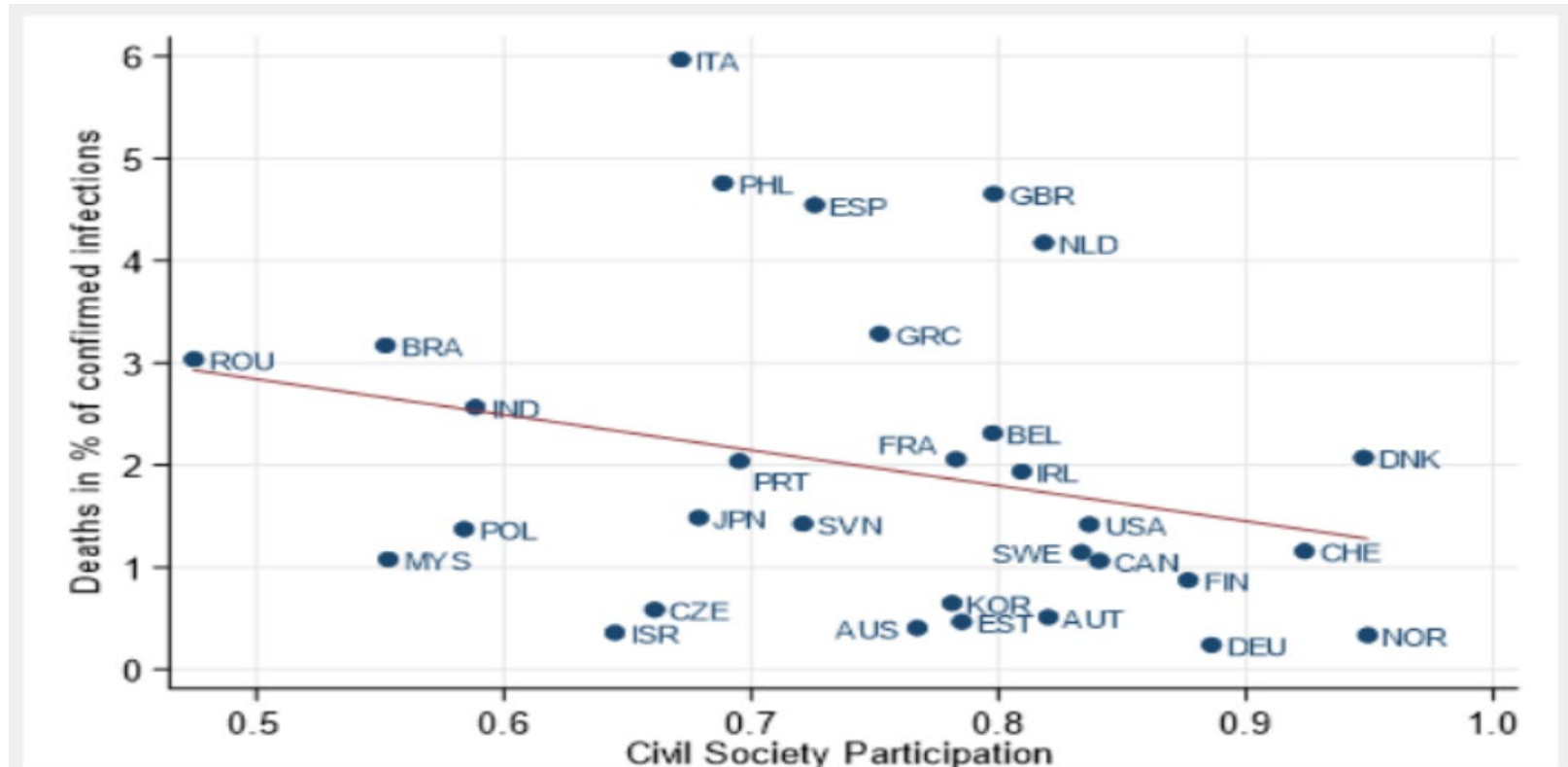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 요지

김의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대응의 다양성

-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전문가, 의협, 일반 시민(civic technology)
- 자원봉사의 힘(의료진, 시민 방역 등)
- 시민의식과 협력(기본 에티켓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 시민 감시와 민주주의
- 위험부담과 편익 불평등 완화(취약계층에 대한 옹호 및 지원) 등

시민사회 참여와 코로나19 치사율 상관관계



Average fatality rates in 31 democracies, 16 to 18 days after exceeding 100 confirmed infections. The Red line denotes average rates conditional upon leaves of Civil Society Participation. Sources: Johns Hopkins University, International IDEA www.idea.int/gsod-indices

Comments and Questions

-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대응의 기원?
- 지방정부의 재발견?
- 대학의 역할?: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 보장,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지식 제공 및 연구 공유(서울대학교 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모델 제시(온라인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적극적인 역할 등)